

#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해법 찾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았다. 금호생명 건물을 매각해 성공하면서 금호생명 매각의 걸림돌을 제거한데다, 유상감자를 통해 대한통운에 묶여있는 보호예수금 가운데 1조6천억원의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 대한통운 보호예수금 1조6천억 회수

## 사옥 팔린 금호생명 매각작업도 순조

구분	유동성확보 자금
금호산업	계열회사 자본매각 등 8,925억원 SOC주식 1,540억원 부동산 매각 등 1,040억원
대우건설	투자유가증권 2,502억원 SOC주식 3,102억원 부동산 매각 등 기타 5,000억원 9,520억원
아시아나항공	계열회사 자본매각 등 5,080억원 기타 9,031억원
계	4조5,740억원

◇금호생명 사옥 팔아 2천400억 마련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생명 사옥을 JR자산관리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2천4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는 이를 통해 금호생명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사옥가치 산정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로 그룹 유동성 확보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금호생명 매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 측은 금호생명 지분 '50%+1주'나 '소유 전량(69.84%)'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지

만 부동산 가치 산정을 놓고 판매자와 의견을 보였었다.

그를 측은 매각 대금이 금호생명 쪽에 들어가지만 생명 매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룹 전체 유동성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감자로 1조6천억 확보 = 금호 측은 대한통운 유상감자를 통해 1분기 내에 1조6천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가 지난해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유상증자분 4조1천억원, 증권업계에

선 대한통운이 금호벤처의 센터가

부분 인수자금으로 3천73억원을 썼고, 인수를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골드만삭스와 STX펜오션 등의 보유 지분(19.42%)을 사용하는 7천억원 가량을 사용하면 3월에 2조4천억원의 현금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주요 주주를 털어낸 만큼 배당과 비슷한 성격의 유상감자를 통해 1조6천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길을 마련할 셈이다.

대한통운에 대한 금호 계열사 지분은 아시아나항공·대우건설 등 총 85%로 유상감자를 할 경우 2조4천억

원의 85%인 1조6천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3월말 임시주총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금호그룹의 유동성 확보안 중 상당부분을 구체화 한 만큼 유동성 문제는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7일 금호그룹 관련주 가운데 대우건설 주가는 가격제한폭(14.58%)까지, 금호산업 주가는 9.68% 급등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불황에 '저가형 설 선물세트' 붐몰

## 광주 유통업체 육식용품·과일 등 1만원대 미만 제품 준비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관천동 이마트 광주점을 찾은 소비자들 이 저가형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 겨울 불황으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소비자들이 저가의 실속·알뜰 선물세트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은 1만원대 미만의 육식용품을 비롯해 사과·배 혼합세트 2만~3만원대, 더덕 실속세트 2만~3만원대, 굴비 기획세트 3만8천원대 등 3만원대 이하의 상품을 마련했다. 또 견어물 세트(1만~7만원대), 한우 선물세트(10만~25만원대)도 준비했다.

수산물 선물세트도 포장재를 줄여 가격대를 낮췄으며 지난해에는 2.1kg을 4만원대에 판매했던 굴비도 올해는 1.8kg으로 줄여 가격을 1만원 낮췄다.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등도 5만5천~7만원대의 저가형 상품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병풍 위주로 선물세트를 구성한 것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저렴한 가격대 상품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다목적 전기생선 영광에 공장 짓는다

## 105억 투자 협약

해상관광이나 근거리이동,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전기자동차 공장이 영광에 들어선다.

전남도와 영광군,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인 ㈜탑알앤디는 7일 오후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전기자동차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탑알앤디는 영광군 백운을 죽사리의 옛 백수고교 폐교부지 2만2천㎡에 2011년까지 105억원의 투자를 투자해 수륙양용, 근거리이동용, 골프장용 3종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

영광 공장이 완공되면 14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며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다목적 전기자동차를 양산, 일본 제품이 장악한 세계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국의 ‘신흥강자’ 대한조선 불황 이기고 세계 2위 오른다”

## 日 해사신문 신년호 특집 보도

일본의 유력 조선·해운 전문지가 신년호 특집으로 대한조선을 세계 2위의 꿈을 꾸는 조선소로 집중 조명했다.

일본해사신문은 지난 1일자 5면에 '한국의 신흥 조선소를 가다'란 특집 기사를 통해 대한조선을 연간 280만대의 건조능력을 갖춰 현대중공업에 이은 세계 2위의 조선소를 꿈꾸는 새로운 강자로 소개했다.

일본해사신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해운시장의 계약 취소가 계속되는 이 위기상황이 끝난 후 살아남을 수 있는 조선소를 현장 취재해 특집 기사로 다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르포형태로 작성한 기사에서 기후가 온난하고 길고 직선인 해안선과 깊은 수심으로 대한조선의 입지를 한국에서 최고로 꼽았다.

또 총 3개의 도크 가운데 현재 1개의 도크에서 지난해 11월까지 3척의 배를 건조, 선주에 인도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대한조선 신덕 부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1호 도크에서만 21척의 배를 수주해 놓은 상태고 선수금환급보증서(RG) 물량 19척까지 포함하면 2011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자금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된 2도크 수주물량도 22척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도크 건조가 늦어지면서 남가내 선주에게 배를 인도하는데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며 우선은 RG분 19척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대한조선의 지난해 매출을 4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올해는 8천억원, 2010년에는 1조2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한조선의 인력구성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직원 대다수가 한국 조선업계의 중견들로 구성됐으며 정사원은 580명, 하청업체 직원은 2천200여명, 설계진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간 100여명의 기능직을 육성해 지역 조선업계에



세계 조선업계의 신흥강자 대한조선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도한 일본 해사신문 신년호. (일본 해사신문 서울취재 제공)

공급하는 것도 대한조선의 장기적인 인력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해운업계의 경기침체로 올해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신흥 조선소들이 계약 취소로 생존경쟁에 놓이게 됐다"며 "대한조선도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력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역 농협 합병 강력 추진”

## 최원병 중앙회 회장 '고강도 개혁' 밝혀

광주·전남지역 단위조합 조합장 직위를 비상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합장 선거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지배구조를 바꾸고, 현장사업은 삼일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7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농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농협인들에게 물려드리기 위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개혁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중앙회장의 권한 및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 회장 임기

단일제와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

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또 부실조합에 '산소마크' 구실을 하던 무이자·저리자금 지원을 농업인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 경영위협 조합의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인 합병을 추진해 난립해 있는 단위조합을 규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고객님의 현상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면적	층수/승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대1,000,2685	15억1천	8980만	비고
우산동	대1,251	1억9천	7천2백	2층주택
회산동	대374,237	5천	2천2백	단층주택
산수동	대44,242	8천4백	2천2백	2층주택
진동동	대40,245	8천1백	4천5백	2층주택
용봉동	대40,240	1억	7천	주택
영광동	대54,235	1억	7천	주택
송정동	대42,231	6천9백	3천1백	단층주택
동양동	대24,229	800만	6100만	주택
신광동	대88,251	2억3천	1억5천	2층주택
영광원전	대149,252	5천5백	1천9백	주택
칠산동	대40,229	7천7백	2천5백	단층주택
광천동	대35,220	5천9백	8천9백	단층주택

신한은행 100-024-62312 (광주지점) 100-024-62312 (광주지점) 100-024-62312 (광주지점)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노령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북동(고흥)출발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방림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세계문화유산 동태기암 한라산 등반 10,000원  
제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 (주중+주중) 179,000원 (주중+주말)  
"목카텐트투어" 103,000원 (4인 기준)  
신한은행 100-024-62312 (광주지점) 100-024-62312 (광주지점) 100-024-62312 (광주지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항공투어 129,000(주중)/149,000(주말)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 45,000 → 29,000원  
신한은행 100-024-62312 (광주지점) 100-024-62312 (광주지점) 100-024-62312 (광주지점)

문의: ☎064-744-1109 www.jejuj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